



중국의 개혁정책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

이소양 연구원

■ 11월 15일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(이하, '3중전회')에서 경제체제, 사회복지, 정부 관리제도 및 사법체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개혁정책을 발표하였음.

- 경제체제 개혁 중 금융개혁은 금융산업 진입 장벽 완화, 금리자유화, 환율자유화 및 위안화 국제화, 자본항목 자유화, 기업공개제도 개편 및 채권시장 활성화 등이 있음.
 - 이외에도 국유기업 개혁, 토지개혁 및 자유무역지역¹⁾ 선정 등이 있음.
- 사회복지 개혁은 최저임금과 임금지급 보장제도 강화, 세수조정을 통한 수익 분배 조절 및 사적 사회보장체제 구축 등이 있음.
- 정부 관리제도 개혁은 정부 개입 완화, 시장 진입 간편화, 예산관리제도 개편 및 세수제도 개정 등이 있음.
- 사법체제 개혁은 주로 노동교화제²⁾ 폐지 및 인권사업제도 강화를 포함하며, 이외에도 도시화 추진 방안 및 식품안전과 환경보호 강화 등도 있음.
- 도이치 뱅크(Deutsche Bank) 중화권 수석경제학자 마쥔(马骏)은 이번 3중전회의 개혁정책이 경제체제, 사회복지, 정부 관리제도 등의 분야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평가하였음.

■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개혁성과가 단기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우나 중장기적으로 상기 개혁정책이 순조롭게 추진되면 중국경제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전망하였음.

- 국유기업, 지방정부 및 감독기구 등 관료 및 기득권 세력의 반발 및 관련 법률이나 규정의 미비로 단기간에 상기 개혁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임.
- 앞서 후진타오 체제가 기득권 세력의 반발로 국유기업 개혁을 비롯한 개혁정책을 추진하지 못하였

1) 자유무역지역은 변경지역의 개방을 확대하고 자유무역지역 내에 기업의 진입 장벽 완화, 금리자유화 등 금융개혁을 실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.
 2) 노동교화제는 공안이 위법행위로 판단할 경우 법원 재판 없이 감금한 채 4년 이하 강제 노동과 사상 교화를 하는 제도임.

으나, 후진타오와 달리 시진핑은 개혁전담 기구를 설립하고 상기 개혁정책을 2020년까지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음.

- UBS 증권 중국수석경제학자 왕타오(汪涛)는 상기 개혁정책이 순조롭게 추진되면 중국 경제 및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해소되고 중국경제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전망하였음.

■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이번 개혁정책이 중국 보험산업 발전의 획기적인 기회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음.

- 사적 사회보장체제 구축으로 기업연금,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등의 보험 수요가 크게 증가할 수 있음.
 - 중국의 경우,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적연금(기본양로보험)제도가 도입되었으나, 보장 수준이 매우 낮고 기금 고갈 우려도 있어 공적 사회보장체제가 취약한 것으로 보임.
- 식품안전 및 환경보호 강화에 따른 책임보험 및 도시화 추진으로 농업보험, 자연재해보험 및 재산보험 수요도 역시 확대될 수 있음.
- 금리자유화, 채권시장 활성화³⁾ 및 기업공개제도 개편⁴⁾ 등 개혁정책은 보험자금의 투자수익률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.
 - 지난 7월부터 대출금리가 이미 자유화되었으며, 향후 예금금리의 상한이 폐지되면 보험자금 투자구조에서 약 30% 비중을 차지하는 정기예금 수익률이 상승할 수 있음.
-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하는 세수제도 개정으로 보험산업의 세금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음.
 - 보험산업에 적용되는 세율이 평균적으로 약 2%p 줄어들 수 있음.

(WSJ, Sina 등)

3) 채권시장 활성화는 은행간 채권시장과 증권거래소 간의 상호연동을 통해 통일된 채권관리체제 구축을 말함.

4) 기업공개제도 개편은 정부가 상장될 기업을 선택하는 승인제에서 기업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등록제로 바꾸는 것을 말함.